

# 마브 윌슨 박사, 선지자, 세션 5, 선지자를 이해하기 위한 해석학적 원리

© 2024 Marv Wil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선지자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Marv Wilson입니다. 이것은 세션 5, 선지자를 이해하기 위한 해석학적 원리입니다.

좋습니다.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기도의 말씀을 합시다.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당신의 계시로 다시 불러들이는지, 어떻게 자신의 세대에게 정의와 윤리에 대한 책임을 묻고 세대 갱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희망을 제시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우리의 성경은 확실히 불완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상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참으로 깊고 심오한 영적 쇄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세대를 위한 메시지와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지닌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왕국은 궁극적으로 당신이 우리 삶에 파고들으신 역동적인 왕국이며, 이생을 넘어 내생까지 도달하는 왕국임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금요일 아침에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해 기뻐합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몇 가지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말고사 날짜에 맞춰 강의 계획서에 수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그러한 수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말고사는 5월 16일 월요일 2시 30분에 있습니다. 강의 계획서에서 해당 내용을 수정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학술 지원 센터로부터 이 강좌에 대한 메모 보관인이 필요하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메모를 할 수 있으며 메모를 복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고 기꺼이 그렇게 하려는 경우 누군가에게 소액의 봉급을 지불할 것입니다. 귀하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되지만,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ASC에 가서 그렇게 할

의향이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오늘 나는 해석학적 원리, 즉 선지자와 선지자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한 해석적 원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내가 해석학적 원리를 말하는 이유는 선지자들이 항상 해석하기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보스턴의 파크 스트리트 교회에서 선지자에 관한 수업을 가르치던 것을 기억합니다. 10주간의 화요일 저녁 수업이었습니다.

나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시 Brandeis University에서 대학원 과정 1학년이었습니다. 파크 스트리트에 다니던 한 여성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같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당신의 아들은 왜 선지자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는 졸업하지 않았고 그녀는 그에게 남서부에 있는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교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을 가르치는 유일한 학교입니다.

적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것으로 백년 이상 동안 유명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와 마지막 때를 다루는 모든 놀라운 일들. 이 여자의 문제는 제가 강의를 하는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근처에 있는 신학교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이해한 것은 특정 신학교가 도표를 펴고 마지막 때의 정확한 연대순 세부 사항을 모두 채우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을 것입니다.

종말론은 기독교 교리나 조직신학에 관한 모든 책에서 실행 가능하고 좋은 주제입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일부는 매우 간단하고 깨끗하며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아주 아주 상세하고, 아주 문자 그대로이고, 아주 아주 아주 연대순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데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그들이 미래에 대해 무엇을 예상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말해야 할 다른 것들은 보다 일반적인 의미의 선지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학적 지침을 제시함에 있어서, 선지자서를 공부할 때 폭넓게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원칙과 지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복음주의를 살펴보면, 예언 문학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배타적이지는 않지만 주로 두 가지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래의 사건과 관련된 예언 문학의 일부입니다. 이 두 학파 중 하나는 종종 예언에 대한 개혁주의 또는 언약적 접근 방식으로 묘사되고, 다른 하나는 예언에 대한 소위 세대주의적 접근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19세기 말, 특히 20세기로 접어들면서, 무엇보다도 스코필드 참고 성경의 영향을 크게 받은 소위 성경 학교 또는 성경 연구소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이러한 성경 학교 중 다수는 종말론과 예언 회의에 많은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는 보스턴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교회가 있었고 총장이나 학장 또는 이러한 성경 대학 중 한 곳의 성경학과의 누군가를 데려오곤 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사실상 이러한 성경 대학은 모두 오늘날 존재합니다. 그들 중 다수는 사람들을 선교 현장 과 기독교 직업 에 직접적으로 진출시키기 위한 특별히 훈련 기관이 되기보다는 좀 더 인문학 교육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심판, 큰 환난, 휴거, 큰 백보좌 심판,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역사의 마지막 절정 전쟁, 아마겟돈을 다루는 다양한 것들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강조점은 교회의 평신도들 사이에서 선지자들을 대중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물론 세대주의적 입장을 지지하는 다른 대중적인 문헌들, The Late Great Planet Earth와 같은 책들, 그리고 지금은 지난 10~20년 동안 이러한 세대주의적 접근 방식의 변형인 Left Behind 시리즈가 있습니다.

복음주의 교회 내에서 생각을 지배해 온 이 두 가지 견해 사이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간략한 개요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세대주의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별하거나 구별합니다. 그들은 두 개의 별도 개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들은 새 이스라엘, 즉 교회에 의해 삼켜지고 영화화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문자적인 방식으로만 이해되어야 한다. 그래서 세대주의는 구약의 예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학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에는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 땅의 나라들로부터 집합되고 그들의 땅으로 회복되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강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이 그 땅으로 다시 모이는 것은 참으로 종말의 징조 중 하나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또한 이스라엘의 집합, 즉 귀환과 관련된 다른 것들을 강조합니다.

물론 재건된 성전과 같은 일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성전산에 두 개의 모스크가 있는데, 그 가능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부활한 제사장 직분, 부활한 희생 제도, 그리고 민수기에서 희생 제도로의 복귀의 일부로 불태워질 이 동물을 묘사하는 붉은 암송아지를 내놓아야 할 필요성에 대한 개념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또한 말세에 이 세상 통치자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유대 민족과 언약을 맺고 파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에서 이 땅에 물리적, 지상적, 정치적 왕국이 세워질 것이며, 그곳에서 예루살렘이 매우 중심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열국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이러한 세대주의적 접근은 이 땅에 환난의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지옥이 풀리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휴거를 빼앗는다는 개념은 세대주의자들이 흔히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부르는 마지막 7년의 전주곡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7년의 기간이 끝나면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돌아오십니다. 그분은 성도들을 위한 휴거를 위해 처음으로 오십니다. 그는 성도들과 함께 7년 환난을 겪은 후에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통치와 통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섭리적 입장이다. 물론 이것이 이스라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스라엘이 교회와 구별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언약적 접근 방식은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배타적이지는 않지만 종종 세대주의적 전천년적 사고보다는 천년왕국적 사고와 결합되어 온 언약적 접근 방식인 언약적 접근 방식은 교회를 새 이스라엘로 봅니다. 천년왕국 접근 방식, 즉 언약적 접근 방식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통치하시는 것으로 보며, 교회 역사 전체를 통해 통치하고 통치해 왔습니다.

그것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 성령을 통해 교회 안에서 역동적으로 통치하고 통치하시는 실존적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미래, 땅으로의 귀환, 희생의 회복 등의 세부 사항은 일반적으로 문자 그대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스라엘을 대체하고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을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즉,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주적인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인간의 마음 안에서의 통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약신학이다.

따라서 언약 신학은 기독교론과 영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이 언어는 비유적인 것이며 대부분의 경우 문자 그대로 이해하거나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스라엘의 정확한 미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많은 언약 신학자들, 개혁 신학자들은 핀란드 사람들, 아이슬란드 사람들, 피지 사람들에게 미래가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도시나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지상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이 있으므로 이 언어는 교회의 관점에서 재해석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때, 여러분은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프리밀이세요? 포스트밀 이 신가요? 당신은 백만장자입니까? 당신 세대는 우리 세대만큼 이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레니엄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아야 한다. 밀레니엄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라틴어 단어로 구성됩니다.

그것의 첫 번째 부분은 천년을 의미하며 라틴어는 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밀레니엄은 천년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그 천년을 언급한 곳은 단 한 곳 뿐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천년 동안 결박되어 있다가 결국 천년 후에 짧은 기간 동안 풀려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따라서 이 땅에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전천년설주의자들은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신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심판을 받는 때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하신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기 때문이라.

천년이 차면 사탄은 감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곡과 마곡의 이 큰 전쟁에 닥쳐올 나라들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모든 전투의 어머니.

아마겟돈과 똑같나요? 다른 전투인가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마지막 사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곡과 마곡은 에스겔 38장과 39장의 후반장에서 따온 것 입니다.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천년 통치 에 대해서는 세 가지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방금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천년 통치를 하신다고 말하는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통치. 이제 전천년 세대주의자들은 그 점을 고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천년시대 비세대주의자들은 그 점을 고수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육체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후천년설의 입장은 매우 단순한 입장이다. 아마도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의 초기에는 다양한 정도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즉, 천년왕국 이후, 즉 천년왕국 이후를 의미합니다. 후천년설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수백, 수백년에 걸쳐 위대하고 계몽되고 영적으로 출현하는 사회가 도래할 때까지 점진적인 사회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후천년설은 기독교가 이 땅에 점진적으로 누룩을 끼치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기독교 선교는 후천년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강조점이다. 기독교의 메시지가 온 땅에 전파됨에 따라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상이 무기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정복됨에 따라 세상은 대대로 점차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 새 세상이 건설된 후에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메시아, 즉 영적인 사회는 여러 세대에 걸쳐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 후천년적 접근 방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이 전 세계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견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인간 본성에 대해 너무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죄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당신은 모릅니다. 당신은 전적 타락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거기에 많은 완고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좀 더 현실적인 견해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너무 인간중심적이네요. 그것은 교회가 나가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인간 마음의 부패와 복음 전파에 대한 저항은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너무 인간중심적이네요.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 낙관적이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다원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비슷한 의제를 갖고 있는 10억 명이 넘는 무슬림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슬람에 복종하는 것이 알라의 뜻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체제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아니요, 온 세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원주의적인 세상에서, 세상이 기독교화될 것이라는 이 비전에서 복음은 종말 이전에 얼마나 멀리, 잠재적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복음 선포를 통해 온 세상이 깨달음에 따라 이러한 점진적인 사회 변화 속에서 출현하는 기독교계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내 유대인 친구들 중 일부는 나에게, 온 세상이 기독교화되려면 우리가 기독교 의제에 저항한다고 가정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천년 기간 후에 오시는데, 이는 복음 전파가 진행되는 상징적인 기간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밀고 밀면 어떻게 되나요? 좋아요, 여기 후천년설의 관점이 있습니다. 특히 무천년설은 5세기 어거스틴과 특히 그 이후의 많은 사람들에 의해 표현된 견해입니다. 밀레니엄은 없다고 합니다.- Amillennium .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인간 마음 안에 있는 이 통치와 다스림은 마지막 때까지 계속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 민족과 이스라엘에 관해 예언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구원의 로켓의 두 번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달은 새로운 이스라엘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강조했던 구체적이고 현세적이며 지정학적 강조가 취소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개인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확실히 나는 수십 년 동안 언약 신학자들과 세대주의 신학자들의 교차 수정과 그들이 가졌던 대화 때문에 세대주의는 점차 변화해 왔으며 점차적으로 훨씬 더 진보적인 관점으로 열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이고 예루살렘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영적인 영역에서 가능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무천년설주의자가 세대주의자들의 말을 점점 더 많이 듣는 반면, 무천년설주의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고대 백성을 위해 아직 갖고 계시는 일종의 육체적 또는 지상적 현현의 가능성에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자 수만큼 많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유는 이것이 다소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해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불을 키우는 세대주의 교회에서 자랐으며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모든 답을 배웠습니다. 그것들은 성경 자체에서만 발견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사용한 성경의 모든 메모는 이미 존재했던 것을 분명히 해 주었습니다. 그 해석은 이미 성경에 녹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석은 성경이 분명히 가르친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그러한 견해 중 많은 부분이 보다 언약적이고 개혁적인 무천년설 접근 방식에 의해 도전을 받는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학에 대해 배워야 할 것 중 하나는 신학에서 아주 많은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의 성경 해석의 특징은 체계가 아니라 하나의 대답이 아니라 대화식, 대화식, 또는 유대인들이 주석처럼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랍비 누구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랍비 누구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러한 가르침의 다양한 이해를 왔다 갔다 함으로써 균형을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측면 모두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 줄게. 나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부터 교회가 탄생한 순간의 예수까지 하나님께서 거의 2,000년 동안 가르친 모든 것과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두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20년 동안은 그 교회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유대인이 아니라면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서기 29년부터 서기 49년까지 교회는 유대교 내에서 하나의 운동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하듯이 그것은 나사렛 운동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수 운동의 일원이 되고 싶다면, 물론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방인도 유대인과 합류할 수 있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유대교로 개종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보존되어야 할 민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대교 내의 운동이었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거의 2000년 동안 특정 민족을 통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의 육신의 조상들, 민족적, 국가적, 육적, 유대 민족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영원한 언약에 관한 모든 약속, 영원한 언약인 베리트 올람의 일부인 땅에 관한 모든 약속이 이제 취소된 새로운 실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아니요.

로마서 9-11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을 읽으셨을 때 저는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영적 순례의 일환으로 나에게 제시된 이 두 가지 주요 시스템을 듣고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로마서 9-11장을 읽고 싶었습니다. 나는 로마서 9-11장에서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해 말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언약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리스어로 현재형을 사용합니다. 그들에게는 성약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방인의 믿음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있음을 말하는데 이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시기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려

하심이니 믿지 아니함으로 가지가 잘려도 이스라엘은 육신적으로는 존속함이라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다시 접목시키세요.

바울은 또한 이스라엘이 육신에 있을지라도 그의 옛 친척들이 조상들을 위하여 여전히 사랑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별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바울은 당신과 나만큼 종말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로마서 9-11장 끝부분에는 구원자가 언젠가 시온에서 나오시며 야곱에게서 모든 경건치 못한 것을 쫓아내시고 문맥적으로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 분명히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시간에 걸쳐 누적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순간에 그의 믿음을 보게 될 것인지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후에 이스라엘의 절정은 시온에서 나오는 이 구원자와 관련하여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의 몇 구절을 모아봤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스라엘의 물리적 종말이 물리적으로 시작된 방식과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내산에서 기업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제 기업의 정점이 있습니다.

Paul이 얻지 못한 세부 사항. 그는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손을 치켜들고 “아, 이 하나님의 비밀의 지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폐하지 않으셨으므로 자기 동족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제 구약에는 육적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신약에는 교회가 포함되어 확장됩니다.

그것에 대해 실수하지 마십시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정확한 맥락에서 표시되는 반면, 신약에서는 이방인이 유대인과 합류하며, 아브라함이 그랬기 때문에 확장된 버전의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므로 그 개념이나 원리 또는 함축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아이들을 갖기 위해.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께 '예'라고 대답하는 순간 성경의 4분의 3이 지워진다면 나는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예라고 대답할 때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씨의 일부가 되려면 아브라함의 백성, 아브라함의 땅, 또는 하나님께서 그 족장에게 약속하신 것들에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부분적으로 적절한 방법론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방법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교회 사이의 관계, 또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미래 사이의 관계는 복잡하지만, 역사적으로 교회가 해결한 해결책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성경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로 이어졌습니다.

왜? 2세기 흑해 연안에 화성인(Martian)이라는 교회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화성인은 구약의 하나님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유대 민족의 신을 던져 버리십시오.

그래서 그는 기독교의 정경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정말로 버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Marcions 에 의해 욕되고 망가졌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는 144년에 로마로 끌려가 이단자로 선고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에 있어서 구약성경에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날 교회에는 신 마르시온주의의 흔적이나 주머니가 있습니다.

구약성서 설교를 듣기까지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교회에 가면 약간의 신마르시온주의가 작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어가 필수 이고 히브리어는 선택 사항이거나 전혀 제공되지 않는 신학교에 가면 직장에서 신마르시온주의의 냄새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초기 기독교 세기에 역사적으로 두 번째 접근 방식은 교부들이 등장했고 그들은 이스라엘에 관한 이 위대한 예언들을 비유화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 특히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부어주심,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표현과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우리는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선지자들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교부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구약성서의 상징적 의미를 우화화하는 경향이 있었고 선지자들에게서 기독교적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구약의 일부를 보존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그 부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그 의미를 얻습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 접근 방식인 체리 따기 접근 방식은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수세기에 걸쳐 따랐습니다.

그들은 구약을 보고 기독교와 양립할 수 있다고 믿는 율법, 가르침, 자료를 취하고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질적 판단에 기초하여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예언서를 해석학적으로 해석하는 우리의 해결책이 초대교회가 했던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초대교회에는 편견이 있었는데, 그 편견은 그들이 모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자기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여러분과 내가 행하는 믿음의 영웅들을 기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구약의 인물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편견은 신약성서에 있는 어떤 것도 구약성서에 있는 내용과 모순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기반으로 할 수도 있고, 확장할 수도 있고, 그 의미를 확대할 수도 있지만, 그것과 모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유익하니 바울은 주로 구약을 언급하면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교회의 모든 주요 공의회는 66권의 책 모두가 교회 생활에 있어서 완전한 영감을 받았으며 완전한 권위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구약성경을 성경으로 보아 왔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우리의 방법론이 무엇인지입니다. 그래서 선제 공격을 가하고 그것을 열기 전에 폐기하기보다는 그것을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신약성서로 인도하는 도약판일 뿐이라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누가 필요합니까? 이러한 사고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계획 A가 실패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동물의 제사를 드리며 할례를 받으라.

천년 은 버틸게요 . 아, 이스라엘은 정말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이제 더 나은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약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 A를 폐기할 것이며 이제 이 일은 사랑과 은혜, 믿음과 자비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항목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실패와 이 새로운 항목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영감받은 성경으로 보기보다는 구약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견해입니다. 초대교회는 시편을 찬송가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성경이었습니다. 5세기 어거스틴 시대에는 시편 150편을 모두 암기하지 않고서는 성직자의 최고 직위에 오르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마음으로 알아야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의 유산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교부들이 했던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출발점은 신약성서였고 그들은 구약성서를 되돌아보기 때문입니다. 화성인은 슬프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것부터 시작해서 오래된 것을 되돌아보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해석학적으로 우리는 초대교회가 했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성경 한 권밖에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약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성경의 정경으로 유통되고 있는 27권의 전체 목록을 가지려면 서기 4세기로 가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교회의 처음 몇 세기 동안 구약은 매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책이 항상 성경으로 정확하게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점점 더 많은 숫자를 얻고 이방인이 되면서 유대인의 목소리는 그 교회에서 점점 더 소외되었습니다.

회당에서, 교회에서 교회는 결국 갈라지는 길을 가게 되었는데, 이는 적어도 2세기 중반 저스틴 순교자 시대에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교회사의 다른 증거를 통해 알 수 있지만, 4세기까지 회당에는 여전히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에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신약보다는 구약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약에 대한 주석과 연구를 마친 후에는 구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신약을 위한 준비가 아니고, 거기서 내가 얻는 유일한 것은, 아, 이 사람들이 끔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신약성경을 가지셔야 했는지 이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께서 더 나은 방법을 필요로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고, 나의 가족이며, 초대교회의 가족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오직 한 권의 성경만 있었던 구약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들의 저서들은 구약성경에 대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미드라쉬, 주석, 해석적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사도서적, 신약성서라고 부르지만, 새롭다는 것은 새 차처럼 아주 새롭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물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 오래된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오래된 것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성경에 있는 그 성경에 대해 더 많은 말씀을 갖고 계시나요? 마지막 단계는 다시 한 번 구약으로 돌아가서 구약의 일부에 대한 신약성경의 묵상을 취한 다음 해결책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국을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 예수께서는 "이봐, 네가 왕국에 대한 이런 생각을 어디서 얻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아니요, 그분은 단지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아는 것이 당신의 몫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순간 중 하나를 택하여 바로 그곳에서 왕국의 전체 개념을 영성화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 강의에서 할 것처럼, 미래에 성경 예언의 많은 세부 사항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잠시 멈춰야 할 이유가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접근 방식을 취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분은 그것들을 모두 취소하시나요? 이제 갑자기? 구약성서에도 지정학적 언어가 많이 나옵니다. 메시아의 개념.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합니까? 그는 전사 인물입니다. 그는 왕의 인물입니다. 그는 통치자 인물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입니다. 지구의.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성취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지만, 그러한 주제 중 많은 부분이 궁극적으로 해결될 때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왕국은 이미 일종의 영적인 2단계이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 구약성서의 많은 예언들을 우리가 미래의 어느 날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Marv Wilson입니다. 이것은 세션 5, 선지자를 이해하기 위한 해석학적 원리입니다.